

## 원정시위로 번진 ‘쓰레기 갈등’...자원 vs 폐기물 이해 충돌

광주권 생활쓰레기 연료 만들어 1t당 1만8000원 나주 공급  
나주 주민 “광주 쓰레기 반입 반대...각자 발생지서 처리해야”  
광주시 “인허가 전남도·나주시가 하고 책임 떠넘겨선 안 돼”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이웃 대도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SRF) 반입과 소각에 반대하는 도시 간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규모 차량 원정 시위로 번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와 ‘SRF저지 나주시민 비대위’ 등 80여개 나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광주 쓰레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반입 반대’ 차량 승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광주에서 전량 자원화 또는 매립해야 한다”며 “나주시로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정 집회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매몰처리하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전체 시설 손실비용 보전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고 막바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광주권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정정빛고을) 손실 비용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게 원인으로 전해진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청정빛고을 시설과 SRF연료 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금액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매몰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방공사가 제시한 8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 중, 3분의1을 차지하는 광주권SRF 생산시설 매몰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앞서 체결된 협약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문제에서 촉발돼 도시 간 쓰레기 처리 문제로 번진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비추지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광주시의 이기적인 스

레기 처리 행정이 크게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전량 이웃 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1t당 1만8000원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 반면, 쓰레기연료 반입에 거부하는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난방요금 납부를 통해 연료구입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SRF를 연료(자원)로 보지 않고, 사실상 광주시 생활쓰레기를 매일같이 나주로 실어와 소각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반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주민 집단 반발에 부딪혀 도시 내 유일한 상무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광주에서 발생하는 1일 360여t에 달하는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나주혁신도시로 전량 보내는 계획을 실행한 점도 반발의 빌미가 됐다.

반면 광주시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인허가를 내줘서 건립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쓰레기가 아닌 고�형연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납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 남구 양과동에 SRF연료 생산공장(정정빛고을)을 건립하기에 앞서 공동 투자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전남도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반대 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SRF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열고 있다. 단체는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일부를 나주시에 반입, 연료화하는 SRF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을 야기한다며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와 나주시에 ‘광주권SRF 나주 반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주 내부 문제이며, 인허가권자인 전남도, 나주시를 비롯해 운영권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RF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료화시설인 청정빛고을에 투자한 광주시도 2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발전소 가동 여부는 난방공사가 결정한 사항이라 광주시가 도와 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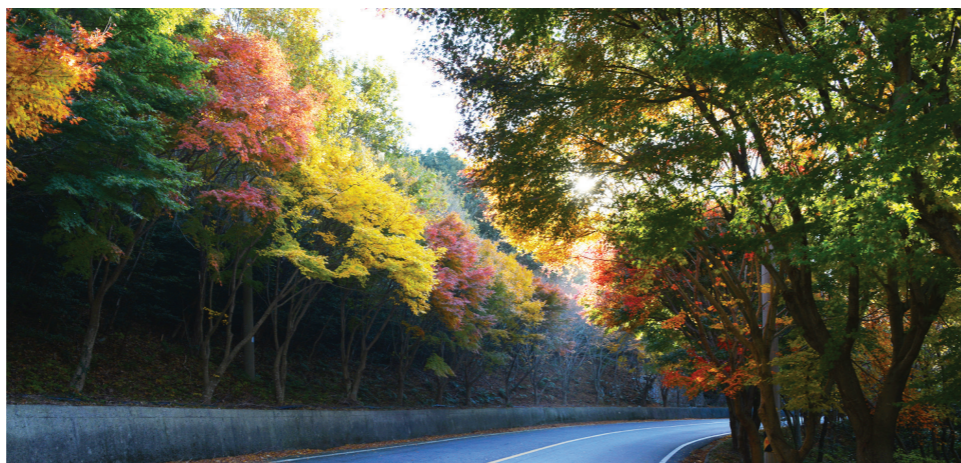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장 마지막 물드는 완도 청산도 단풍, 20일 절정

진산리~지리 약 3km 도로 양쪽  
30년된 단풍나무 터널 장관 연출

형형색색 화려하게 물들었던 단풍이 지고 있지만 완도 청산도는 11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이라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청산도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흑시 가을에 대한 목마름이 남아 있다면 청산도 여행을 추천한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청마을까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건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연출한다. 완도=김광수기자

## 옛새째 두 자릿수 확진 광주·전남 코로나 포비아

11일 이후 지역 감염 100명 넘어서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옛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

(관련기사 8면)

16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8명과 전남 8명 등 모두 146명으로, 지난 11일 이후 옛새째 두 자릿수 확진이다. 날짜별로는 11일과 12일 각각 14명, 13일 20명, 14일 15명, 15일 14명, 16일 16명 등이다. 지역감염이 대다수여서 11일 이후 108명으로 하루 평균 18명 꼴이다.

광주에서는 호남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임원 환자와 보호자에 이어 입주업체(시중은행) 직원까지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신경외과, 감염내과 병동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예약된 수

술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전남 11명에 이어 또 다시 8명이 새롭게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전남 250~257번)로 분류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역시 순천, 광양에서 쏟아져 나왔다.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이들은 식당·대형 쇼핑몰·통근버스 등을 통한 지역 감염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로 확인됐다.

교육계도 초비상이다. 전남대에서만 2개 단과대학 재학생 3명이 확진돼 대학 당국이 긴급방역 조치와 함께 접촉자 동선 파악에 나서는데 비상이 걸렸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학생 2명이 가족감염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김민정기자

**함평産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